



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
특허로 더하는 행복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과 장 류동현 사무관 유철중	042-481-5879 042-481-5918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심판원, 5인 합의체 구술심리 첫 개최

- 11월 15일 특허심판원 대심판정 개소 -

- 특허청(청장 최동규) 특허심판원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개소하고, 첫 5인 합의체 구술심리¹⁾를 개최한다.
- 기존에도 특허심판원은 대전에 있는 4개의 심판정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사회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 여러 심판부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5인 합의체가 지정되더라도 서면심리만 할 뿐 구술심리를 할 수 없었다.
 - 또 지난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허가와 특허심판이 연계되면서 5인 합의체에 의한 구술심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특허 한 건에 대해 여러 명이 다수의 심판(평균 10개)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간부족으로 인해 이들 사건을 병합해서 구술심리진행이 어려웠다.

1) 특허심판원 심판정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심판관 합의체(심판장, 주심, 부심) 앞에서 직접 진술을 통하여 쟁점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함으로써, 쟁점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

□ 이에 특허심판원은 정부대전청사 2동 18층에 5명의 심판관 합의체, 8명의 당사자, 45명 내외 참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완공했다.

○ 이날 개소되는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에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영상구술심리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 이에 수도권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심판 당사자, 대리인들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도 편리하게 구술심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대심판정이 개소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대·중소 기업 간 사건, 융복합 기술 사건 등에 대한 5인 합의체 구술심리가 더욱 활성화 되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동규 특허청장은 “날로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특허분쟁을 저비용 고효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심판제도·시스템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판의 품질과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5인 합의체 구술심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첫 5인 합의체(심판장 천세창) 구술심리 사건은 기계, 화학 융복합기술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기계, 화학 전공 심판관 5인이 참여한다. 양측 당사자들은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인다.

※붙임: 1. 구술심리 연혁

[붙임 1] 구술심리 연혁

- 중요사건에 대한 5인합의체 심리
- 당사자가 많은 대형사건 병합심리

다용도 대심판정 개설
(2016. 11.)

10년간 구술심리 개최 5배 증가
(2006년 123건 → 2015년 646건)

- 고객편의 증진
- 거리의 제약 극복

영상구술심리제도 도입
(2014. 04.)

- 고객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구술심리 활성화

심판정 추가 (2010)
(대전에 3개, 서울에 1개 심판정 추가)

- 사건의 이해도 증가
- 심판품질 향상

구술심리 도입 (2006)
(대전에 1개 심판정 개설)

- 서면으로만 심리

심판정 미개설
(2006년 이전에는 서면으로만 심판)